

〈主 題〉

한국의 정보화 현황과 전망

정 진 일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 차 례 □

- I. 서 론
- II. 정보사회의 의미와 구성
- III. 한국의 정보화수준과 현황
- IV. 21세기 한국사회의 정보화 전망
- V. 맺는말 -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

I.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를 둘러싼 환경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정보사회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정보시대의 출현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정보화의 대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다. 정보화물결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다양한 메타포어로 미래사회를 은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간명하게 요약된다. 즉, 정보사회는 물질이나 자본, 에너지 또는 생산기술에 의해서가 아닌 정보통신의 힘에 의해 인도되는 사회라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사회는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unication)』에 의해서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정보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 기업, 개인은 정보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변신의 노력과 함께 소위 『정보전쟁』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 정보화의 물결은 인류사회의 제반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마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전근대적 농업사회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로 바뀐 것 처럼 정보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새롭게 생성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영향에의

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거대한 변화, 즉 Megatrend가 진행되어 바야흐로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로의 사회변동이 이루어지는 소위 패러다임적 탈바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있는 한국사회가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산업사회의 한계로 인해 노정된 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새롭게 도래하는 정보사회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에 의해 그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는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장차 우리나라의 사회원리와 사회구조가 과거와 다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상황을 인식하여 시도된 본 연구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한국사회의 정보화 수준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미래모습을 전망하면서 대응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정보사회의 의미와 구성

정보기술에 의해 사회, 경제, 정치, 행정, 문화 등 각방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今後の 사회환경은 『소용돌이의 場』으로 불가측성이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의 정보화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발명과 혁신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정보혁명의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단계에 있다. 비록 각 사회의 경제여건과 정치·사회적 안정도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술혁명의 확산은 종전의 사회 제반분야를 재조직하는 총체적인 변동인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정보통신은 정보화의 기반구조로서 사회부문의 활동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전달, 처리, 유통, 축적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이른바 사회, 산업,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부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타 산업은 물론 사회, 정치, 문화 등 다른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사회, 경제, 문화분야의 변동에 기여하는 등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 정보시대의 사회구조

일본의 미래학자인 増田米二는 『정보화사회』에서 <표- 1>에서와 같이 산업사회이후의 사회인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축이 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보인프라가 사회적 생산기반 또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 시설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성패가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에 있다고 확신하여 각국은 인프라확충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장차 한국사회도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용이 증대되면서 정보통신의 사회적 기반구조가 정비될 것이다. 더구나 산업을 중심으로 사회, 가정부문에 정보통신망의 보급이 확대되고 통신에 의한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고도화되고 사회적 역할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2. 정보사회의 산업구조

산업부문에서 정보통신은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과정에 개재된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품종소량 생산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는 소비 측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고도화되도록 유도하였고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패턴에 생산, 분배활동이 대응

<표 1> 정보사회와 산업사회의 구분

구 분	산 업 사 회	정 보 사 회
핵심기술	동력기관, 기계	컴퓨터
사회적 상징	공 장	컴퓨터정보시스템
시장확대요인	대량소비	지식탐구 및 개발기회
선도산업	기계 및 화학공업	정보통신산업
생산방식	분업,전문화, 기업과 가정간	사용자의 정보자가생산
사회구조	생산소비분리	축적된 정보 공동이용
	중앙집권적	자발적, 개방적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사회는 18C이후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의 타개를 위해 운하,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구조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인간의 경제활동을 진작시켜왔으니,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 정보사회에 있어서도 정보기술의 진전은 정보의 운송을 담당할 “통신 Infrastructure” 즉, ISDN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정보의 축적을 담당할 “정보인프라”인 Database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양자의 상승적 발전을 통해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 실현을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정립과

하게끔 유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은 산업경제에 여러가지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산업 및 기업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산업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하여 정보사회를 형성하는 기반구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이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장차 산업구조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한편 “산업의 정보화”는 고도의 정보통신관련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다양하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그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활동에 혁신을 꾀하려는 산업과 기업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생산·판매로부터 사무관리 등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향상,

유연성, 지식집적화, 효율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정보의 산업화"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이 산업·기업활동에 다양하게 적용·활용됨으로써 정보를 가공하고 동시에 그것이 통신체계와 관련시켜 보다 고도화된 정보처리서비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패키지화되어 마치 하드웨어와 같은 상품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적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결국 정보를 비즈니스형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의 산업화"라고 하는데 이를 연출하는 산업이 정보처리산업 또는 정보제공산업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에 의해 『정보의 산업화』와 『산업의 정보화』가 병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3. 정보사회의 문화양상

정보부문의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그동안 고부가가치의 높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온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확대와 정보부문 종사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생활에 있어서는 높은 국민소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가 고부가가치의 정보통신부문 종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전반에 걸쳐 국민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소득증대에 의해 국민들은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생활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뉴미디어의 발달과 보급화대로 다양하고 고도화된 정보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즉, Home Shopping, Home Banking, Home Reservation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의 발달로 가정에서 정보처리 및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번잡한 업무에서 자유롭게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TV전화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의 발달로 노인이나, 장애자들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집단에게도 교제기회와 편의를 제공해주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정보사회로 진전하면서 사회성원들의 행동기준도 종전의 집단규범에서 자신의 의사와 욕구에 두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층의 행태에서 보다 자주적이며 선택지향적인 성향이

강렬하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성원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세계지리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관련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고령화된 인구가 증대하면서 자연과 생태를 중시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정체(Identity)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고 삶에 있어서는 보다 진실되며 현실적인 가치를 희구하면서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정보사회의 문화는 산업사회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형태의 새로운 정보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표 2> 욕구의 다양화

동 향	욕 구 내 용
글로벌리즘	지리적, 정보적 욕구 확대
Amenity & Ecology	자연·생태·쾌적성의중시
Arealism & Identity	지리적, 정보적 아이덴티티 재편
진실추구	현실·실질가치 회복

III. 한국의 정보화수준과 현황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정보화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교시점에서의 정보화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변화추이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현황 및 수준은 <표 3>의 국가별 정보화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1/7~5/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국가별 정보화지표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정보화 지표	100	699	496	475	437	490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의 정보 인프라와 비교해 볼 때 <표 4>에서와 같이 그 격차가

1) 국가정보화지표는 정보사회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보설비, 정보이용, 정보화도자분야를 지표로 설정하여 각 지표분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측정항목을 13항목으로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선진5개국을 대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시계열비교표로 한국전산원에서 작성한 것을 재인용함.

〈표 4〉 한-미-일의 정보인프라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한/미	한/일
PC출하대수 (만대)	120	1,860	300	1/15.5	1/2.5
인터넷접속호스트 수(만대)	1.8	318	9.7	1/176.7	1/5.4
CATV가입가구수 (만가구)	18	5,700	163	1/316.7	1/9.1
DB 매출액(억불)	1.2	1,300	230	1/1,083	1/191.7

현격하게 나타난다. PC출하대수는 미국과 일본의 1/15.5~1/2.5 수준이며 인터넷접속호스트수라든지, CATV가입자수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의 근간이 될 DB분야에서는 미국, 일본의 1/1,083~1/191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화노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 즉, 〈표 5〉에서 보듯이 '93년 기준으로 11.47%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9%미만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정보화성장율은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국가별 정보화성장률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정보화성장률	11.47	9.31	6.87	6.64	5.67	0.11

IV. 21세기 한국사회의 정보화 전망

미국의 현대사학자인 존 루카스는 〈20세기의 종언과 근대의 종언〉이란 저서에서 “역사는 50년간의 냉전의 시대를 거친 후 20세기 끝에서 있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되었던 20세기는 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바야흐로 오늘의 시기를 ‘역사전환의 시발점’이라고 한다. 사실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눌 때 다가오는 21세기는 근대이후의 사회이며 탈 근대 또는 초근대시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 크다.”

1. 대변혁의 정보시대와 한국사회

오늘날 우리는 문명사적 대변혁기에 처해 있다. 이는 정권적 차원 또는 세기적 차원이 아닌 문명사적, 지구인류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사적 변화는 세계화, 국제화와 함께 지역화,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정보화가 급진전되어 자동화, 지식화, 개성화가 밀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21세기의 국가정보화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국가개조를 위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정보화를 채택하고,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정보화의 조류를 맞고 있는 한국사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에 처해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오늘의 한국에게 주어진 것 즉,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은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당위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정보화’이다. 21C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은 고도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정보통신이 핵심수단으로 등장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보사회란 기본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증대하여 물질가치와 비교했을 때 그 이상으

1) 정진일저, 『민주화, 정보화의 작은 불씨가 되어』, 정보시대, pp.151-183, 1996.2
 2) 지난 3월18일 무궁화위성관제소에서 가진 기념식과 5월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공표하였음. 조선일보, 3월19일자 및 5월 2일자

로서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로서 컴퓨터와 전기 통신의 발전이 상호 융합하면서 이루어진 사회이다. 달리말하면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회이며 구체적으로는 물질, 에너지절약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특히, 정보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은 가정, 사회, 산업 등 정보화의 진전을 뒷받침하며 사회의 계층별 Network를 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이루며 정보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21세기 한국사회의 정보화 전망

제3의물결로 불리는 정보화의 파도는 끊임없이 거 세계 밀려들어와 산업사회의 모습을 점차 변형시키고 있다. 저간에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특징을 근거로 볼 때 한국사회가 나타낼 변화된 모습은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보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새로운 첨단기술 사회 즉, 정보사회는 과연 발전된 사회일까? 또한 이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정보사회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 같이 사회의 한 형태로서 우리의 생활전반에 깊숙히 파고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갑자기 일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회형태가 아니며 정보사회의 형성, 발전, 성숙이라는 사회발전의 제단계를 거치면서 그 모습이 구체화될 것이다.

첫째, 제1단계는 정보사회가 형성하는 시기이다. 정보사회의 문턱에서 아직은 산업사회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산업사회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으며, 산업중심이 정보경제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생산 및 산업의 능률화, 권력의 집중화를 가져오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국가로는 미국의 경우 1950년대 후반, 일본과 유럽선진국의 경우 1960~1970년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2단계는 정보사회의 발전기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는 단계로서 OA, FA 등에 의한 『산업의 정보화』와 홈쇼핑, 홈뱅킹, 홈시큐리티, 홈헬스 등 『가정의 정보화』와 그리고 행정정보체계 등의 발달에 의한 『사회적 정보화』를 포함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 있는 국가로는 현재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세째, 제3단계는 정보사회의 성숙하는 시기이다. 정보화의 궁극적 단계로서 고도정보사회라고 칭한다. 이 단계의 기술적인 특징으로는 정보·통신의 디지털

화가 실현되며, 각종 미디어가 다양하게 결합되어 멀티네트워크(Multi-Network)가 형성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21세기의 길복에서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으로는 정보통신분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경이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산업사회를 지나서 이미 정보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다.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다양한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이 이루어져 광역전산망(Wide Area Network), 근거리전산망(Local Area Network) 및 부가가치전산망(Value Added Network) 등의 확충과 함께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개인용컴퓨터 및 중대형컴퓨터 등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기부터 정보화촉진을 위한 국가정책과 민간부문의 노력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정보사회에 진입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보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고도 정보사회의 성숙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차 우리가 살아갈 한국사회의 모습은 세계화의 가속화, 고학력화의 전개, 인간육구의 고도화 그리고 정보네트워크의 확충에 따라 그 모습과 기능이 적지 않게 변화할 것이다.

3. 정보화 진전에 따른 역기능

정보통신이 우리의 생활에 깊게 스며들면서 예기치 못하는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는 사회가 선과 악의 양면적 기질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므로 정보사회의 모습도 야누스처럼 마치 포도주의 맛과 같이 날콤한 맛과 씁쓸한 맛을 가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성, 윤리성,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씁쓸한 맛은 놀라운 충격을 던져줄 것임에 틀림없다. 정보통신이 인간의 불행함을 감소시키거나 절망을 없애기보다는 자칫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특히, 엔트로피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을 비판한 J.Rifkin이나, 더 늦기전에 21세기에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던 로마클럽의 아우렐리오패체이(池田大作)의 주장 그리고 프랑스포랑크푸르트학파의 기술문명에 대한 비판과 A.Huxley나 G.Owell의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사회비평의 소리들은 정보사회의 허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장차의 정보사회가 관리국가 또는 통제국가화 한다는 점과 기계로

부터 인간의 소외감, 스트레스, 무력감이 커간다는 점 그리고 정보격차가 이전의 부와 권력의 격차보다 현격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 피지배계급을 조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획일적인 문화의 형성과 허위 의식의 만연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종속이 초래되며, 실업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격차가 발생하여 새로운 국제종속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의 결과로 인간성의 측면에서 무력감, 소외감, 고립감의 문제를 일으키고 노동윤리를 황폐화시킬 위험도 없지않다. 게다가 직접적인 대면관계(face to face)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자폐화 경향이 가속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산업사회와 다른 새로운 계층격차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빠르게 선별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사회지도층으로 부상하게 되며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언론매체를 단지 흥미위주로 이용하는 자들이 새로운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 각종의 정보를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이 정보사회를 이끌어갈 것인데 일반대중과는 계층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정보유통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질문화의 전파와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를 수용할 능력이 결여된다면 국제적으로는 문화의 종속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지역문화의 육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의 국가간 통상마찰 및 하이테크 마찰에 못지않게 아니 더욱 심각한 문화마찰을 초래할 것이다. 현실의 세계는 바야흐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언론·출판기능의 확대로 정보홍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쉽없이 축적되고 있는 지식·정보량은 어느 누구도 전량소화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어느 누구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지식확산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심리학자 G.Miller에 의하면 인간이 접수, 처리,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은 정보홍수의 시대에 살면서 정보과다증 또는 정보소화불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화 진전에 따라 수반되는 역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V. 맺는 말 -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 -

정보화는 경제뿐만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서 획기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주며 결국 전문분야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로인한 해악은 적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 사회, 그리고 가정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가효율을 강화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화야말로 우리가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역설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정보화 환경에서 우리가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선택은 오직하나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 뿐이다. 이는 다시말해 고도 정보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며 기술적 추진력(Technology Push)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견인력(Social Pull)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더욱이 도래하는 정보사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추진력에 사용하는 사회적인 견인력을 조속히 형성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올바르고 굳건한 정보화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사회의 기술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올바른 정보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과학과 정신과학의 융합과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각오는 어떠해야 하는가? 급속히 다가오는 정보화와 이에 따른 사회변화를 지혜롭게 수용하여 풍요로운 정보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문명사회의 주력산업이 될 정보·지식·문화산업에 국가적인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국가정책을 결정짓는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계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이 창조적, 지원자적, 정보제공적, 기업가적 역할로의 변신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정보사회의 가치관의 확산과 사회구조의 합리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경영의 민주화, 개인의 다양한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환경 조성, 교육을 통한 정보능력의 배양, 정

보가치관의 확산 등이 민간차원에서 주력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 개개인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정보기기나 뉴미디어의 이용방법을 익히고 정보 기술사회가 가져다 줄 빛과 그림자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정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나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발전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능동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 개개인은 창의적 노력과 능동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정진일

- 1968년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사회학과 졸업
- 1987년 : 화승그룹 임원
- 1992년 : 민주자유당 중앙본부 홍보위원장
- 1994년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이수
- 1994년 :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現)
정보화추진협의회 부의장(現)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現)
신한국당 국책자문위원(現)
평화통일자문위원(現)
- 1996년 : 정보엑스포 '96 조직위원회 위원(現)